

하의도의 토지 회수 투쟁

編輯者

1911년 하의 3도(하의, 상대, 하태(荷衣, 上台, 下台)) 도민들은 일본인 우근(右近)에게 넘어간 토지를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일본인에게 협력하는 자의 집에 불이 났고, 일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민 100여 명을 목포로 체포해 갔다.

이에 격분한 도민들은 목포까지 가서 농성을 하였으나 일본 경찰은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1914년 2월에는 완전 무장한 헌병과 경찰 7백여 명이 하의도에 상륙하여 도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총기를 난사하며 도민 백여 명을 다시 붙잡아 갔다.

경찰의 폭력과 강요로 인하여 도민들은 모든 토지 관련 문서를 우근에게 넘기며, 도민들은 영·소작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화해 조서를 강

압적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맺어진 화해 조서였기에 도민들은 1916년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고, 그러한 도중 토지 소유권은 역시 일본인인 덕전에게 넘어갔다.

1919년 덕전이 땅을 인수할 당시 하의 3도의 관계 토지는 4백만평, 관계 도민은 1,200명이었다.

덕전은 일본 육군 예비역 소좌를 관리인으로 배치하는 한편 무장 경찰과 집달리를 앞세워 불납 소작료를 강제로 받아 내었다.

각 마을마다 조선인 마름을 두고 모든 일에 이들을 앞세움으로써 도민의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총 수확의 2/3를 소작료로 거두어 갔다.

1922년 도민들은 하의 소작인회를 결성하고 소작료 불납 동맹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회장, 부회장 이하 간부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 구금됨으로써 활동이 침체되고 말았다.

1924년에도 도민들은 힘을 합쳐 소작료 징수에 항거하였고, 이러한 소작료 불납 투쟁의 결과로 1928년 1월 하의 농민 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들이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토지 회수 및 소작 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 나가려 하자, 덕일은 친일

분자이며, 폭력배로 유명한 상애회(相愛會) 박춘금(朴春琴) 일당을 동원하여 농민회를 탄압하였다.

결국 1928년 2월 농민 수백 명과 충돌하였고, 이들 중 12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공유법, 공화법, 김찬배, 변인옥, 우정운, 우정선, 최옥중, 최용도, 최용환 등 10명은 1928년 10월에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향토 문화

신안과 한국 전쟁

編 輯 者

1950년 6월 25일에 자행된 북괴의 침략에 신안의 각 도서(島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 상륙 작전 후 국군 해병대에 의해 수복될 때까지 좌·우익의 충돌로 신안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가슴아픈 상처를 남겼다.

특히 북괴군 및 좌익들은 반장이

나 부락 청년 단체에만 가입되었어도 반동 분자, 악질 분자의 낙인을 찍어 잡아넣고 억지로 범죄 사실을 만들어 모진 고문을 했으며, 신안군 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을 집단으로 구덩이 속에 넣고 생매장을 하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